

중국에서 윤봉길 사건의 주제의식 변천 연구

박혜진* · 박설매**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맥락화' 되고 있는 해방 후 중국의
윤봉길 서사 |
| 2. 중국에서의 윤봉길 사건 서사기조
(叙事基調) | 5. 나가는 말 |
| 3. '삭제'되고 '치환'되는 해방 전 중
국의 윤봉길 서사 | |

국문초록

1932년 1월 28일 일본군은 상하이의 갑북에 주둔한 국민당 19육군 부대를 공격했는데 적에게 기습을 당한 19육군 부대는 참패하여 상하이 교외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은 또 홍커우(虹口) 공원에서 4월 29일 천황 탄신일(천장절) 기념행사를 열어 이 기회에 '송호 전쟁 경축대회'도 진행하려 하였다. 중국인들의 분노는 하늘에 치달았으나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이때 한국 의사 윤봉길이 행사 현장에 나타나 단상 위로 폭탄을 던졌다. 윤봉길은 이 의거로 중국에서 이름난 한

* 연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제1저자

** 연변대학교 부교수, 교신저자

국의 항일투쟁 영웅으로 되었는데 독립과 항일 정신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매체에서는 윤봉길 사건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윤봉길 사건의 영향은 엄청났지만 중국인들이 윤봉길 사건에 대해 서사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김구의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과 『도왜실기』 그리고 몇 편의 신문기사밖에 없었는데 더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불확정성’, ‘다원성’ 및 ‘미완성성’을 띠고 있었기에 신빙성이 부족하였다. 윤봉길 사건의 불확정성은 작가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중국 작가들이 이 사건에 ‘바꾸기, 더하기, 빼기, 치환 및 복잡화(complexity)’ 등 상호 텍스트 간의 전환을 통해 윤봉길 사건의 중국화 서사를 만들었다. 아래 윤봉길 사건의 중국화 서사를 착안점으로 하여 윤봉길 사건이 중국 문학 중에서의 서사 특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 윤봉길, 중국 서사, 상호텍스트성

1. 들어가는 말

1932년 1월 28일 일본군은 상하이의 갑북에 주둔한 국민당 19육군 부대를 공격했는데 적에게 급습을 당한 19육군 부대는 참패하여 상하이 교외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은 또 홍커우(虹口) 공원에서 4월 29일 천황 탄신일(천장절) 기념행사를 열어 이 기회에 ‘송호 전쟁 경축대회’도 진행하려 하였다. 중국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한국 의사 윤봉길이 행사 현장에 나타나 단상 위로 폭탄을 던졌다. 이로 인해 일본 상하이 점령군 총사령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는 즉사했고 주중일본공사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는 폭발로 다리 하나를 잃었다. 윤봉길은 이 의거로 중국에서 이름난 한국의 항일¹⁾투쟁 영웅으로 되었다. 독립과 항일 정신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매체에서는 윤봉길 사건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무고한 중국 민중과 한국인들을 이 사건에 더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김구는 같은 해 5월 9일에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虹口公園炸彈案之真相)」이라는 공개 서신을 발표하여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고 또 같은 해 연말 『도왜실기(屠倭實記)』에서 사건의 시말을 진일보 보충하였다. 1933년 5월 조소앙은 『유방집 열전·윤봉길 전(遺芳集列傳·尹奉吉傳)』²⁾에서 윤봉길의 일생 및 홍커우 공원 의거를 짧게 소개하였으며 같은 해 김광이 『윤봉길전(尹奉吉傳)』³⁾을 출판하였다. 상술한 두 텍스트의 기록은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虹口公園炸彈案之真相)」와 『도왜실기(屠倭實記)』중의 기록과 비슷하게 일치된다.

홍커우 공원 의거가 일어난 후 조소앙이 『윤봉길전(尹奉吉傳)』을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 작가들도 윤봉길 사건을 모티브로 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시가⁴⁾로는 유링(友箏)의 「장사행」(「壯士行」), 선위룽(沈玉溶)의 「한국지사에게 드리노라」(「獻給韓國的誌士」), 인안(陰庵)의 「윤봉길에게 드리노라」(「贈尹奉吉」), 창파수(常法素)의 「윤봉길」(「尹奉吉」), 상성차이(商生才)의 「영웅을 기리노라(8수) 조선 지사 안중근과 윤봉길 선생을 기념하여」(「悼英魂(八首) 紀念朝鮮志士安重根與尹奉吉先生」), 선취란(沈卓然)의 「윤봉길」(「尹奉吉」), 왕웨이(王越)의 「한의사가」(「韓義士歌」), 쉬지형(徐際恒)의 「홍커우 폭파안 감회」(「虹口炸案感懷」) 등이 있고 산문⁵⁾으로는 징즈(憬之)의 「공경하고 탄복할 만한 한국청년」(「可欽

1) 抗日: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중국에서는 항일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중일전쟁을 중국에서는 항일전쟁이라 명명하고 있다.

2) 趙素昂, 『遺芳集列傳·尹奉吉傳』, 南京: 大同學會, 初版於1933.5.15, 8-93pp. 자세한 내용은 이은상, 『소앙선생문집』, 서울: 삼성인쇄주식회사출판, 1979, 441쪽.

3) 金光, 『尹奉吉傳』, 上海: 法界韓光社, 1933年, 3-4pp.

4) 시는 함축된 언어, 압축된 형식 및 풍부한 리듬과 운율로 생활을 고도로 집중해 반영하고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문학 장르인데 가사를 포함한 시 문학을 통틀어 시가라고 부른다.

童慶炳, 『文學理論教程』,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197p. 참조.

可佩的韓國青年」), 왕시평(王席豐)의 「한인-폭탄 투하 사건 감상」(「韓人-炸彈後底感想」), 야즈(啞子)의 「조선의 민심이로다」(「朝鮮民心從此可見一般」), 샤오즈(篠枝)의 「동포들이여 한인에게서 이런 법을 배웠는가?」(「同胞其亦知取法于韓人也否?」), 쓰아이(自哀)의 「안중근으로부터 윤봉길까지」(「從安重根說到尹奉吉」), 간핑(甘平)의 「중국의 윤봉길은 어디에 있는가?」(「中國尹奉吉那裏去了?」), 쉬바이안(徐柏庵)의 「윤봉길 지사를 곡하노라」(「哭尹奉吉誌士」) 등이 있다. 또 소설로는 샤페이(霞飛)의 「윤봉길」(「尹奉吉」), 판제농(潘子農)의 「윤봉길」(「尹奉吉」)이 있고 극본으로는 쑤량공(孫良工)의 「복수」(「復仇」), 시야자치(夏家祺)의 「윤봉길」(「尹奉吉」) 등이 있다.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윤봉길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치학, 역사학 및 신문방송학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문학 연구도 대부분 거시적인 서사 연구로 집중되어 있어 윤봉길 사건이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전파되고 어떤 식으로 구사되고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윤봉길 연구는 신문매체의 반향을 둘러싸고 연구되면서 이 사건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토론하고 있다. 그중 김재욱은 중국 근대문학 작품 중 윤봉길 제재의 문학작품의 특징에 대해 논했고 뉴린제(牛林杰)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중국 근현대 문학 작품 속에서의 한국 항일투쟁 영웅의 형상을 소개하였다.⁶⁾ 그리고 한지연이 윤봉길 사건

5) 넓은 의미에서의 산문에는 시가를 제외한 모든 문학 장르가 포함된다. 그러나 문학적 의미에서의 산문은 시가, 소설, 극본 등과 병렬되는 문학 형식으로 서정 산문, 서사 산문, 잡문, 기행문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학 산문은 제재가 광범위하고 구조가 영활하다.

童慶炳, 『文學理論教程』,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202p.

6) 介紹了潘吉農的短篇小說『尹奉吉』, 三部話劇作品, 几篇散文和詩歌. 김재욱, 「尹奉吉 의거를 제재로 한 중국현대문학 작품과 그 특징」, 『한국독립사 운동』 5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8, 226-258쪽. 뉴린제, 탕전, 「동아시아 현대문학 속의 한국 항일영웅 서사」, 『아시아문화연구』

이 중국화 서사된 두 편의 작품을 둘러싸고 논문을 발표하였다.⁷⁾ 중국에서의 윤봉길 연구는 대체적으로 13편 좌우가 존재하는데 그중 다섯 편은 한국 학자들의 연구이다. 그러나 이도 대부분 정치, 역사적 각도로 윤봉길의 의거를 평가하고 있다.⁸⁾ 또 중국에서의 윤봉길에 대한 기사를 담은 논문이 두 편 있으며⁹⁾ 근대 동아시아의 관계, 조선 의열 운동의 발전 등 역사문제를 담은 논문도 네 편 있다.¹⁰⁾ 그리고 중국 문학 속에서의 한국인들의 항일투쟁 형상에 관한 논문이 세편 존재한다.¹¹⁾ 오

45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7.11, 183-209쪽.

- 7) 한지연, 「윤봉길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의: 소설 『천국의 새(回歸天堂)』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54집, 한국보훈학회, 2020.3, 49-69쪽.
한지연, 「독립운동가 윤봉길 형상 서사의 수용사적 고찰: 潘子農의 소설 『尹奉吉』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62집, 한국보훈학회, 2022.3, 93-112쪽.
- 8) 李充陽, 「尹奉吉義舉의歷史性」,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9, 4-5pp.
金學俊, 「尹奉吉義士의上海義舉與東北亞和平共存」,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9, 6-7pp.
朴宰雨, 「中國作家的韓人抗日英雄敘事與尹奉吉、魯迅精神的匯合」,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9, 31-38pp.
- 9) 孫科志, 楊曉雯, 「中國人對尹奉吉事件的認識-以媒體報道爲中心」, 『韓國研究論叢』13, 復旦大學韓國學研究中心, 2006.10, 137-145pp.
蘇智良, 「中國媒体對尹奉吉義舉的報道」,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9, 15-19pp.
- 10) 石源華, 「尹奉吉義舉的時代意義」,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9, 8-14pp.
詹明靜, 「中韓民族聯合抗敵禦侮的新起點-虹口公園爆炸案的歷史地位述論」, 『皖西學院學報』21(4), 皖西學院, 2005.8, 72-75pp.
邵雍, 「朝鮮志士與中國社會」,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9, 20-23pp.
宋成有, 「日本朝野의 『滿蒙情結』與中韓聯合抗戰」,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9, 24-30pp.
- 11) 金昌鎬, 「中國現代小說中的韓國人形象」, 『社會科學戰線』2004(1)期, 吉林省社會科學院, 2004.1, 108-112pp.
吳敏, 「論中國現當代小說中的韓國獨立義烈鬥爭形象」, 『韓國研究』10輯, 浙江大學韓國研究所, 2010.12, 381-397pp.
朴宰雨, 「韓中國際合作精神的藝術表現-論中國現代小說裏韓人抗日鬥爭的反映」,

로지 문학적 시각으로 ‘윤봉길 사건’의 중국에서의 서사를 다룬 허웬항(何遠航)의 『통문화와 텍스트 간: 두 극작품 중의 윤봉길 서사를 논함』¹²⁾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윤봉길 사건을 주제로 창작된 두 개의 극작품을 통문화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샤오융(邵雍)의 『1932년 홍커우 공원 폭파안과 중국 여러 부분의 관계 탐구』¹³⁾에서 여러 문건 사료들을 들어 윤봉길 의거 배후의 진실한 역사를 밝혀냈다.

윤봉길 사건의 영향은 비교적 컸지만 중국인들이 윤봉길 사건에 대해 서사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김구의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 규명(虹口公園炸彈案之真相)』과 『도왜실기(屠倭實記)』 그리고 신문기사 밖에 없었는바 더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불확정성’, ‘다원성’ 및 ‘미완성성’¹⁴⁾을 나타내고 있었기에 신빙성이 부족하였다. 하나의 텍스트 원본은 일렬의 부호적 실체(entities)로 이 부호들은 일정한 언어 환경 속에서 작가에 의해 선택되고 배열되며 다른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독자들에게 특정된 어떤 의의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¹⁵⁾ 윤봉길 사건의 불확정성은 마침 작가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중국 작가들이 이 사건에 ‘바꾸기’, ‘더하기’, ‘빼기’, ‘치환’ 및 ‘복잡화(complexity)’¹⁶⁾ 등 상호 텍스트 전환을 통해 윤봉길 사건의 중국화 서사를 만들었다. 앞에서 제기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본문에서는 윤봉길 사건의 중국화 서사를 착안점으로 하여 윤봉길 사건이 중국 문학 중에서의 서사 특점

『當代韓國』47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5.12, 4-8pp.

12) 何遠航, 牛林杰, 『跨文化與跨文本: 論兩部劇作的尹奉吉敘事』,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73輯, 齊齊哈爾大學, 2019.11, 90-94pp.

13) 邵雍, 『1932年虹口公園爆炸案與中國各方的關係初探』,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2(4)期, 2003.7, 45-50pp.

14) 대부분 작품들은 김구가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虹口公園炸彈案之真相)』을 발표한 후, 조소앙이 『유방집열전·윤봉길전』을 발표하기 전에 썼었는데 시간선으로 본다면 김구의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虹口公園炸彈案之真相)』과 『도왜실기』의 영향이 제일 크다.

15) 李玉平, 『互文性』, 北京: 商務藝術館, 2014, 67p.

16) 李玉平, 『互文性』, 北京: 商務藝術館, 2014, 74p.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중국에서의 윤봉길 사건 서사기조(叙事基調)

홍커우 폭파안의 계획자 김구는 『홍커우공원 폭파안 진상규명(虹口公園炸彈案之真相)』중에서 윤봉길은 1931년 8월 상하이 땅을 밟았고 1932년 4월 26일에 한인 애국단에 가입했다고 강조하며 중국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광의 『윤봉길전(尹奉吉傳)』에서 중국인들의 모습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샤오융(邵雍)의 연구에 따르면 홍커우 폭파안은 국민당 19육군 부대, 왕야초(王亞樵)와 한국 측이 함께 계획한 것이라 하였다.¹⁷⁾ 국민당 정부 행정원 부원장 겸 경호위무총사령 천밍쑤(陳銘樞)와 19육군 장교 차이팅카이(蔡廷鍇), 쟡광나이(蔣光鼐) 및 왕야초(王亞樵) 등은 밀담하여 천황 탄신일(천장절) 기념행사를 뒤엎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행사 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였고 또 일본 측에서 내세운 규정에 의하면 일본, 조선 및 대만인들만 입장을 허하게 하고 중국인들의 입장을 금지하였기에 왕야초(王亞樵) 등은 최후 방편으로 상하이에 망명해 있던 조선혁명당과 은밀히 접선하여 연합행동을 계획하였고 뒤처리까지 해두었다. 거사 후 김구는 중국을 연루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이 중국 측과 무관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따라서 민중들이 본 ‘사실’은 ‘중국인들은 침묵하고 한국인들이 일제를 폭사한 것’이 되었다.

윤봉길 사건은 중국인들의 항일투쟁에서 하나의 기폭제로 되었다. 이는 많은 중국인들의 창작 열정을 불러일으켜 윤봉길 사건을 저본으로 한 많은 중국 작품들이 발표되었는데 구체적 상황은 아래와 같다:

17) 邵雍, 「1932年虹口公園爆炸案與中國各方的關係初探」,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2(4)期, 2003.7, 45-50pp.

	제목	작가	장르	출판사/잡지	발표시간
1	『공경하고 탄복할 만한 한국청년』 (『可欽可佩的韓國青年』)	징즈 (憬之)	산문	『사회와 청년』 제2기 (『社會與青年』第2期)	1932. 5.11
2	『한인-폭탄투하 사건 감상』 (『韓人-炸彈後底感想』)	왕시평 (王席豐)	산문	『사회생활』 제6기 (『社會生活』第6期)	1932. 5.20
3	『장사행』 (『壯士行』)	유링 (友苓)	시가	『철로월간』 제2권, 제4-5기 합간 (『鐵路月刊』第2卷, 第4-5期合刊)	1932. 5.31
4	『한국지사에게 드리노라』 (『獻給韓國的誌士』)	선위룡 (沈玉溶)	시가	『안휘학생』 제1권, 제1기 (『安徽學生』第1卷, 第1期)	1932. 6.5
5	『윤봉길에게 드리노라』 (『贈尹奉吉』)	인안 (陰庵)	시가	『침과』 제10기 (『枕戈』第10期)	1932. 6.21
6	『조선의 민심이로다』 (『朝鮮民心從此可見一般』)	야즈 (啞子)	산문	『항일 반월간』 제2기 (『抗日半月刊』第2期)	1932.6
7	『동포들이여 한인에게서 이런 법을 배웠는가?』 (『同胞其亦知取法于韓人也 否?』)	샤오즈 (篠枝)	산문	『항일 반월간』 제2기 (『抗日半月刊』第2期)	1932.6
8	『윤봉길』 (『尹奉吉』)	창과수 (常法素)	시가	『안휘학생』 제1권 제2기 (『安徽學生』第1卷, 第2期)	1932. 7.5
9	『영웅을 기리노라(8수) 조선 지사 안중근과 윤봉길 선생을 기념하여』 (『悼英雄(八首) 紀念朝鮮志 士安重根與尹奉吉先生』)	상성차이 (商生才)	시가	『현촌자치』 제2권 제7기 (『懸村自治』第2卷, 第7期)	1932. 9.1
10	『안중근으로부터 윤봉길까 지』 (『從安重根說到尹奉吉』)	쯔아이 (自哀)	산문	『9.18 주보』 제1권 제10기 (『九一八周報』第1卷, 第10期)	1932. 9.15
11	『윤봉길』 (『尹奉吉』)	사페이 (霞飛)	소설	『강소』 제7-8권 합간 (『江蘇』第7-8期合刊)	1932. 9.18

12	『윤봉길』 (『尹奉吉』)	판제농 (潘子農)	소설	『모순월간』제1권 제3기, 제4기 (『矛盾月刊』第1卷 第3期, 第4期)	1932. 12.5
13	『복수』 (『復仇』)	쑤량궁 (孫良工)	극본	『전도』1권, 제2기 (『前途』1卷, 第2期)	1932. 12.5
14	『중국의 윤봉길은 어디에 있는가?』 (『中國尹奉吉那裏去了?』)	간평 (甘平)	산문	항저우 중앙항공학교 『공군』제5기 (杭州中央航空學校 『空軍』第5期)	1932. 12.11
15	『윤봉길 지사를 곡하노라』 (『哭尹奉吉誌士』)	쉬바이안 (徐柏庵)	산문	『순환』주간 제2권, 제12기 (『循環』周刊第2卷, 第12期)	1932. 12
16	『윤봉길』 (『尹奉吉』)	선취란 (沈卓然)	시가	『학생문예총서』 제7권, 제3기 (『學生文藝叢刊』 第7卷, 第3期)	1932. 12
17	『한의사가』 (『韓義士歌』)	왕웨이 (王越)	시가	『학형』제77기 (『學衡』第77期)	1932
18	『홍커우폭파안감회』 (『虹口炸案感懷』)	쉬지형 (徐際恒)	시가	『국풍』반월간 제2권, 제3기 (『國風』半月刊 第2卷, 第3期)	1933. 2.1
19	『윤봉길』 (『尹奉吉』)	시아자치 (夏家祺)	극본	『지방교육』제42기 (『地方教育』第42期)	1933. 3.10
20	『상하이에서 한인이 폭탄을 투척했던 사실을 듣고 지었 던 시』 (『聞上海韓人投擲炸彈事舊 作』)	서우빙 (瘦冰)	시가	『협대학생』제9기 (『協大學生』第9期)	1933
21	『윤봉길』 (『尹奉吉』)	펑위샹 (馮玉祥)	시가	『옥상시집』자체인쇄 (『玉祥詩集』自印)	1934
22	『윤봉길』 (『尹奉吉』)	첸쓰 (陳适)	극본	『황종』제4권, 제6기 (『黃鐘』第4卷, 第6期)	1934. 5.15
23	『『제견집』시선-윤봉길 의사 에게 드림(4수)』 (『『啼鵲集』詩選-贈尹奉吉義 士(四首)』)	왕아오시 (王敖溪)	시가	『사회월보』제1권, 제9기 (『社會月報』第1卷, 第9期)	1935. 6.15

24	『『고소집』시선-봉길』 (『『苦笑集』詩選-奉吉』)	왕아오시 (王敖溪)	시가	『사회월보』제1권, 제9기 (『社會月報』第1卷, 第9期)	1935. 6.15
25	『조선 청년 혁명인 윤봉길 을 기념하여』 (『紀念朝鮮革命青年尹奉吉』)	씨처우 (昔壽)	산문	『청년단결』제4기 (『青年團結』第4期)	1938
26	『조선의사 윤봉길의 노래』 (『朝鮮義士尹奉吉歌』)	첸뷔권 (陳伯君)	시가	『여론』제1권, 제1기 (『輿論』第1卷, 第1期)	1940. 10.1
27	『의사행(3수) 제2수: 윤봉길 의사의 흥커우 폭파안을 읊 노라』 (『義士行(3首) 第2首: 詠尹 奉吉義士虹口炸案』)	로우하이 (징메이주) (老海 景梅九)	시가	『광복』제1권 제4기 (『光復』第1卷 第4期)	1941. 6.20
28	『『항전시사』시선-장열재 윤 봉길(2수)』 (『『抗戰詩史』試選-壯熱哉尹 奉吉(二首)』)	야오보린 (姚伯麟)	시가	『9.18 1.28 7.7 8.13 태 평양 항전시사』 『九一八、一二八、七 七、八一三、太平洋 抗戰詩史』	1948.3
29	『천국으로 돌아가다』 (『回歸天堂』)	시아니앤생 (夏輦生)	소설	문화출판사 (文匯出版社)	2002
30	『대한 의사행』 (『大韓義士行』)	탕하오 (唐灝)	극본	『영화문학』2010년 제21기 (『電影文學』2010年 第21期)	2010

지금까지 발굴된 작품은 30부가 되는데 그중 19부의 작품은 조소앙과 김광의 윤봉길전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발표된 것이고 말미의 두 작품은 당대¹⁸⁾ 작품에 속한다. 윤봉길 전기가 출시한 후 중국 작가들이 윤봉

18) 중국은 고대, 근대, 현대, 당대로 시기 획분을 하여 한국의 시기 획분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중국 역사에서는 1840년 아편전쟁 이전을 고대로, 아편전쟁을 근대의 시작으로, 1919년 5.4운동을 현대의 시작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을 당대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 문학사도 정치와 비슷한 주선율로 흐르고 있으나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원전 5000년으로부터 1840년까지 고전문학, 1840-1917년까지 근대문학, 1917-1949년을 현대문학, 1949-현재까지를 당대 문학으로 규정짓고 있다.

길 사건에 대한 허구와 ‘합리적 상상’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 후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진실한 역사적 사실에 더욱 근접한 ‘합리적 상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 현대문학 중의 ‘윤봉길 사건’은 모두 ‘중국과 한국이 손잡고 함께 일본군을 막아내자’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 중국 작가들이 윤봉길 사건에 대한 태도는 ‘망국의 형제를 비분’해 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발자취를 따라 전진’에 이르고 또 ‘함께 막아내자’로도달하는 과정이며 점차 승화되는 정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징즈(憬之)의 산문 「공경하고 탄복할 만한 한국청년」(「可欽可佩的韓國青年」)에서는 윤봉길 의거는 전 세계의 피압박민족들을 위해 행한 정의라 규정하면서 잠들어 있던 전 세계 피압박민족들을 깨운 위대하고 의의 있는 행동이라 찬송하였다. 뒤이어 왕시핑(王席豐)은 「한인-폭탄 투하 사건 감상」(「韓人-炸彈後底感想」)에서 중국의 동북 영토를 일본에게 빼앗기고도 실질적 반항이 없이 탁상공론만 하는 중국인들을 부끄러워하며 윤봉길 의사를 따라 배워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를 호소하였다. 유링(友箒)은 시가 「장사행」(「壯士行」)에서 패망한 대한의 한 청년이 천하에 이름을 날렸는데 오늘날 누가 이 장사의 뒤를 이어 이름을 만고에 남기겠는가며 비분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다. 선위룽(沈玉溶)은 1932년 6월 발간된 『안휘학생』에 시가 「한국지사에게 드리노라」(「獻給韓國的誌士」)를 발표하였는데 시에서는 나라를 잃은 윤봉길의 처지를 동조하면서 “너희들을 품어 키운 고향이 이 잔혹하고 사나운 승냥들에게 짓밟히니 통탄할 노릇이로다!”¹⁹⁾ (不忍昔日撫養你們的古邦, 遭遇這殘暴的兇猛的虎狼)라고 비분에 가득 찬 시어를 읊조리었으며, 윤봉길이 흥커우 공원 폭과 사건을 일으킨 이유를 합리화시켰다. 인안(陰庵)은 「윤

袁行霈, 『中國文學史1-4』,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3.

朱棟霖, 『中國現代文學史(1917-2013)』,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4에서 참조.

19) 沈月溶, 「獻給韓國的誌士」, 金柄曙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 32p.

봉길에게 드리노라」(『贈尹奉吉』)라는 시가에서 윤봉길의 사적을 노래하며 그의 정신에 감복하고 있다.

샤오즈(篠枝)는 산문 「동포들이여 한인에게서 이런 법을 배웠는가?」(『同胞其亦知取法于韓人也否?』)에서 윤봉길 의거를 통해 한국인들이 아직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민심을 보여주며 나약한 중국인들은 무슨 낯으로 민중을 마주할 것인지 비통해하며 하루빨리 윤봉길을 따라 배위공을 세워 민중 앞에 속죄하라 부르짖고 있다. 여기에서부터는 윤봉길 의거를 따라 배우라는 사상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7월에 발표된 시가 「윤봉길」(『尹奉吉』)에서 창파수(常法素)는 “동북의 도살, 상하이외 굴욕! 그 저항하지 않던 목소리 속에서 망국의 윤봉길이 나타났다.”(東北的屠殺, 上海的摧殘! 在那不抵抗的聲中……反過來了個國破家亡的尹奉吉)²⁰라고 하였는데 이 시구에서 윤봉길은 중국 민중을 단결시켜 외적에 대항하는 인도자 형상으로 부각되었다. 상성차이(商生才)는 「영웅을 기리노라(8수) 조선 지사 안중근과 윤봉길 선생을 기념하여」(『悼英雄(八首) 紀念朝鮮志士安重根與尹奉吉先生』)에서 안중근과 윤봉길의 사적을 시가의 형식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앞사람이 넘어지면 뒷사람이 이어나가는 한국인들의 혁명정신을 칭찬하면서 중국동포들에게도 연합하여 혁명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쓰아이(自哀)의 산문 「안중근으로부터 윤봉길까지」(『從安重根說到尹奉吉』)에서도 역시 안중근과 윤봉길의 사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윤봉길이 비록 왜놈들 손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위대한 정신은 가히 칭송받을만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따라 배위 적극적으로 반항하기를 희망하는 정서를 내비친다. 그 후 발표된 샤페이(霞飛)의 소설 「윤봉길」(『尹奉吉』)에서는 윤봉길이 체포된 후 불요불굴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허구하여 그려내었다. 작품의 시작과 말미에 샤페이는 중국에 윤봉길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중국인들

20) 常法素, 『尹奉吉』, 金柄瓚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 34p.

이 일떠나서 일본의 침략에 완강하게 저항하길 호소하였다. 또 왕아오시(王敖溪)는 그의 두 시가 『『제견집』시선-윤봉길 의사에게 드림(4수)』(『『啼鵲集』詩選-贈尹奉吉義士(四首)』), 『『고소집』시선-봉길』(『『苦笑集』詩選-奉吉』)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나이의 기개를 노래하며 윤봉길을 한국의 ‘장량(張亮)이라 칭하고 있는데 “한(韓)의 장량이 한(漢)의 장량을 비웃는다.”(“韓張良笑漢張良”)²¹⁾는 말로 중국에 윤봉길과 같은 영웅이 없음을 애석해하고 있다.

1932년 12월 발표된 작품들로는 판제농(潘子農)의 소설 『윤봉길』(『尹奉吉』), 쑨량궁(孫良工)의 『복수』(『復仇』), 간평(甘平)의 산문 『중국의 윤봉길은 어디에 있는가?』(『中國尹奉吉那裏去了?』)와 쉬바이안(徐柏庵)의 산문 『윤봉길 지사를 곡하노라』(『哭尹奉吉誌士』)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윤봉길 서사는 중국에 윤봉길 같은 의사가 없는 것을 한탄하던 데로부터 한중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쑨량궁의 『복수』(『復仇』)에서 윤봉길이 말하기를 “적들은 한술 더 떠 중화민국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쳤다!²²⁾”(“敵人反變加厲，侵略及於中華民國”) 한국인들은 “세계 인도 정의의 승리를 위해 싸운다”(“世界人道正義的勝利”)²³⁾라고 하였다. 간평과 쉬바이안이 중국 인민이 단결하여 윤봉길의 혈적(血跡)을 따라 전진하기를 호소한데 비하여 판제농의 작품에서는 더 강렬한 한중 연대의식을 그리고 있다. 판제농의 소설 속의 윤봉길은 조선 의용대에 참군했을 뿐만 아니라 ‘자베이전투(閘北戰役)’에 까지 참전했었다.²⁴⁾ 소설 속에서 윤봉길은 홍콩 공원 폭파 안을 일으

21) 王敖溪, 『『苦笑集』詩選-奉吉』, 李存光, 金宰旭, 『“中國現代文學與韓國”文獻補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20, 363p.

22) 孫良工, 『復仇』, 金柄瑢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74p.

23) 孫良工, 『復仇』, 金柄瑢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75p.

24) 潘子農, 『尹奉吉』, 金柄瑢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小說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33p.

키기 전날 저녁 “우리는 중국의 형제들을 도와 반항하러 간다.”(我們需要援助中國的弟兄們去反抗)²⁵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한중 연대를 강조하는 과정에도 윤봉길의 영웅 사적에 초점을 맞추어 칭찬하는 작품들이 꾸준히 등장한다. 선취란(沈卓然)의 시가 「윤봉길」(「尹奉吉」)에서는 한국의 복수를 위해 폭탄 하나로 적의 수뇌를 죽인 윤봉길의 영웅 사적에 감개무량함을 표했고 왕웨이(王越)의 「한의사가」(「韓義士歌」)에서는 폭탄 투하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주저하지 않고 분노의 폭탄을 투척한 의사 윤봉길을 칭찬하고 있다. 쉬지형(徐際恒)의 「홍커우 폭파안 감회」(「虹口炸案感懷」)도 역시 그의 기개와 영웅 사적에 대한 칭찬이 중심이다. 또 서우빙(瘦冰)은 「상하이에서 한인이 폭탄을 투척했던 사실을 듣고 지었던 시」(「聞上海韓人投擲炸彈事舊作」)에서 윤봉길의 이름이 천년만년 빛나리라 칭송하며 감개무량해하였다.

1933년에는 시야자치(夏家祺)의 「윤봉길」(「尹奉吉」)이 발표되었다. 시야자치의 「윤봉길」(「尹奉吉」)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중화민국 만세! 조선국 만세! 중국과 조선 양국 인민들이 함께 연합하여 일어나자!”(打倒日本帝國主義! 中華民國萬歲! 朝鮮國萬歲! 中鮮人民一起聯合起來)라는 구호²⁶를 외치기도 하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윤봉길 사건에 대한 중국 서사는 한중의 연대감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34년 발표된 평위상(馮玉祥)의 시가 「윤봉길」(「尹奉吉」) 역시 “우리 함께 허리를 펴 윤봉길로 되자”(我們豎起脊骨來作尹奉吉)²⁷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1933년 이전의 윤봉길 서사는 역점을 홍커우 공원 폭파안

25) 潘子農, 「尹奉吉」, 金柄瑯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小說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38p.

26) 夏佳祺, 「尹奉吉」, 金柄瑯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96p.

27) 馮玉祥, 「尹奉吉」, 金柄瑯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40p. 馮玉祥的作品收錄於發表於1934年的作品集中, 具體創作時間, 應該早於1934年.

에 두고 있는 반면, 1934년 5월에 발간된 첸쓰(陳适)의 극본 『윤봉길』(『尹奉吉』)에서는 사건 발생 전 윤봉길의 행동 궤적을 그려주었다. 이 극본에서는 두 개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윤봉길이 폭파안을 거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김구와 가족들과 작별하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홍커우 공원 폭파안 현장이다. 극본에서는 윤봉길이 홍커우 공원에 가서 도시락폭탄을 던지기까지 심리 활동을 부각하여 더 진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으며 분노에 찬 언어와 슬픔과 한탄 어린 말로 중국인들이 저항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극 중에서 김구는 “……오늘의 중국 사회는 20년 전의 내 조국과 같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최하층 민중들이 각성을 하면 할수록 상류 지배층은 더 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今日的中國社會，恰似二十年前的祖國。最大的共同點：便是下層民衆愈是覺醒得深，上等階級愈是麻醉得緊)²⁸⁾이라 말하며 또 말미에 구호의 형식으로 “동양 피압박-(발버둥 치다) 민족 (피맺힌 절규) 연합하라!”(東方被壓迫——(掙紮)民族(嘶聲)聯合起來!)²⁹⁾라고 외치고 있다.

1938년 국공합작이 시작된 뒤 씨처우(昔疇)는 산문 『조선 청년 혁명인 윤봉길을 기념하여』(『紀念朝鮮革命青年尹奉吉』)에서 윤봉길을 동아시아 피압박 민족들을 각성시키고 일어나게 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인물로 수립했는 바 “윤 지사여, 구천에서 편히 눈을 감으시오! 그대들의 가장 가까운 벗- 중국이 우리의 같은 적과 투쟁한지 이미 15개월이 넘었습니다.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한중 민족은 긴밀히 연합해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낼 것입니다.”(尹誌士，你安眠九泉下吧！你們最好的朋友——中國，跟那共同的敵人搏鬥已經十五個月了，爲了奠定東亞和平，中韓民族只有親密地聯合起來，置日本帝國主義於死地)³⁰⁾라고 호소한다. 첸뷔

28) 陳適, 『尹奉吉』, 金柄瓚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200p.

29) 陳適, 『尹奉吉』, 金柄瓚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200p. 陳適在最後寫道這部劇的創作, 參考了『屠倭實記』和『虹口炸案之真相』, 雖然情間有增刪, 但自信大體不致原理事實.

권(陳伯君)도 시가 『조선의사 윤봉길의 노래』(『朝鮮義士尹奉吉歌』)에서 윤봉길의 폭탄이 나라의 혼을 깨웠으니 마땅히 한중이 각성하여 연합하고 반항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계속하여 로우하이(징메이주)(老海 景梅九)도 시가 『의사행(3수) 제2수: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폭파안을 읊노라』(『義士行(3首) 第2首: 詠尹奉吉義士虹口炸案』)에서 윤봉길 의거를 따라 배워 중국의 아들딸들도 일어나 왜놈을 무찌르고 함께 한중 양국의 치욕을 씻으며 광복에 힘을 보태기를 호소한다. 1948년 광복 후에 발표된 야오보린(姚伯麟)의 시가 『『항전시사』시선-장열재 윤봉길(2수)』(『抗戰詩史』試選-壯熱哉尹奉吉(二首)』)에서는 윤봉길을 안중근과 함께 한국의 복수를 한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20세기 30년대 윤봉길 서사를 보면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윤봉길처럼 기개가 없다 탄식하던 데로부터 마지막에 ‘동양 피압박민족들이 함께 연합’하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윤봉길 사건이 중국 작가의 필축에서 부단히 승화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장르의 작품들이 출현한 시간과 사회 배경과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시가와 산문인데 장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작가의 감정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다음으로 출현한 소설은 신문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장르의 허구성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윤봉길이 어떻게 홍커우 공원으로 가게 되었으며 체포된 후 어떻게 초연히 대응했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중국 문화의 언어 환경에 부합되는 항일 영웅의 이미지를 그려냈다. 1933년 후에 출현한 텍스트에서는 윤봉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들과 작별하고 홍커우 공원으로 향한 과정에 중심을 두고 서술하고 있으며 한중의 연대감을 강조, 일본 침략에 반항해야 함을 절실하게 보여 주었다. 극본이 더 쉽게 선전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그중에는 중국과 한국이 연합하여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자와 같은 많은 구호가 출현하였다.

30) 昔疇, 『紀念朝鮮革命青年尹奉吉』, 金柄曙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76p.

중국문학작품에서 ‘정말로 존재한 역사상의 존재를 쓰며’ 텍스트에서 순 허구적인 ‘한중 연대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작가들이 어느 정도 진실한 역사를 예리하게 잡은 것이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 집단 내부의 공동적인 정치적 수요에 의거한 것이었다. 나라의 존망 앞에서 윤봉길의 홍커우 폭파안은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인들에게 복수의 짜릿함을 줌과 동시에 따라 배울 만한 귀감으로 되었으며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이 연합하여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정치적 주장을 불러일으켰다.³¹⁾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중국 근대문학 서사에서 ‘윤봉길 홍커우 공원 폭파안’을 제재로 한 작품들은 거개가 중국과 한국이 연합하여 일본에 저항하고자 하는 기초 하에 작성되었으며 ‘중국의 벗’인 윤봉길의 형상을 축조하고 있다.

3. ‘삭제’되고 ‘치환’되는 근대 중국의 윤봉길 서사

윤봉길을 주제로 하는 중국의 문학 작품은 주로 1932년에서 1933년 상반기 사이에 발표되었는데 거개가 김구의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과 『도왜실기』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과 『도왜실기』에서는 윤봉길의 출신과 학식 및 경력만 짧게 소개하였기에 작가들에게 많은 상상의 공간을 남겨주었다.

김구의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에서는 윤봉길의 일생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 미처 서술되지 못한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소환 구조(召喚結構)를 형성하고 있다. 대다수가 중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나 예를 들어 윤봉길이 조선에서 ‘야학’과 ‘월진회’를 개설한 것은 일본의 민족말살 교육과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31) 홍커우 사건 후 장제스는 김구와 직접 회견하여 한국을 위해 군사 인재를 배양하기로 약속하고 한국 임시정부에게 재정상의 원조를 해주었다.

사건들은 중국의 사회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다음으로 윤봉길이 칭도우(靑島)에서의 경력 역시 중국 문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30년대의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어 모순이 극도로 첨예한 시기였다. 이때 윤봉길은 일본인의 세탁소에서 일 년 동안 일하면서 여비를 모아 상하이에 갔다. 침략자 일본 고용주 밑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으며 상하이에 갈 여비까지 마련한 윤봉길의 경력은 중국인들에게 다소 이질감을 준다. 마지막으로 중국 독자들이 윤봉길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는 신문기사는 과편화된 ‘사실’로서 독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폭과 동기와 경과를 숨겨져 찾아볼 수 없다.

중국 작가들은 윤봉길과 중국 독자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위에서 이야기한 문제들에 ‘보태고’(添加), ‘줄이고’(縮減), ‘바꾸어 넣는’(置換) 방법들을 차용하여 다듬었다. 우선 중국 독자들이 윤봉길이 한국에서 개설한 ‘야학’과 ‘월진회’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에 대부분의 소설과 극본에서는 이 부분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오직 판제농의 소설에서만 조금 다루어졌을 뿐인데 야학을 개설한 목적이 “항일투쟁 교육을 선전하는 것”³²⁾으로 바뀌어졌다. 필경 중국 작가들과 독자들은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식민통치를 겪어보지도 목격하지도 못했기에 민족말살 교육정책이 실시되던 한반도의 처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항일투쟁 교육’은 중국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상상’인 것이다. 그다음으로 윤봉길이 일본인 사장 아래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모아 상하이로 갈 경비를 마련한 사실도 아주 극소의 작품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 역시 판제농의 소설에서만 출현하고 있는데 판제농 필하에서의 윤봉길은 칭도우에서 일본 사장에게 ‘더 이상 잔혹할 수 없을 정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32) 潘子農, 『尹奉吉』, 金柄瓊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小說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34p. 只要你去找一任何一個小孩來問: “捏緊了你的拳頭是用來做什麼啊?” 那他一定會很勇敢地舉起他底小拳頭, 非常鄭重的回答你: “打死日本人”.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사장을 대신해 일해야 했고 식사는 매끼 허기를 달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적었으며 손바닥은 늘 갈라터지고 짓물러 있었다……가죽 벨트로 맞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一天到晚替他操作，飯食幾乎每餐都不夠充實肚子的饑餓，像岔開了手掌而弄得腐爛的事情，也是司空見慣的……—根皮鞭曾經打得他襯衣全染滿了血跡……)³³⁾

그러나 이런 시련들이 윤봉길로 하여금 더 굳세게 하였는바 이는 전통적인 영웅주의 서사 모식과 중국인의 기대 시야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이 연합하여 일본의 침략에 함께 저항하는’ 1930년대 중국의 담론 환경에 근접하였다. 마지막으로 윤봉길에 관한 중국 서사에서 중국 독자들의 기대 시야는 천황 탄신일 기념행사에서 폭탄을 투하한 계기와 경과 및 투옥당한 뒤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김구의 전기에서 이 부분의 내용은 간략화되어 있어 많은 작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 상상을 전개하여 각기 다른 모습들의 윤봉길을 그려냈다. 판제농 필촉 아래에서의 윤봉길은 전사로 탈바꿈했는데 ‘중국 의용대’에 참가하여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였으며 안중근을 롤 모델로 하여 살신성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샤페이(霞飛) 필촉에서의 윤봉길은 소년 암살단원 중의 일원으로 변신하였는데 그들은 “다른 것은 없다! 오직 폭력의 폭탄과 정교한 권총만 있을 뿐이다”(沒有別的，只有暴力的炸彈和精緻的手槍)³⁴⁾라고 하면서 천황 탄신일 행사 전날 “폭력으로 물든 두 개의 폭탄”(兩顆爆力十足的炸彈)³⁵⁾을 준비한 뒤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면서 윤봉길을 이 소년 암살단원 중에서 사명을 완수한 한 사람으로 그렸다.

33) 潘子農, 『尹奉吉』, 金柄瑯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小說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34p.

34) 霞飛, 『尹奉吉』, 金柄瑯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創作編·散文·紀實·詩歌·劇本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02p.

35) 霞飛, 『尹奉吉』, 金柄瑯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年版, 第102p.

극본에서의 윤봉길의 신분은 더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순량궁의 「복수」(「復仇」) 중에서의 윤봉길은 연인과 작별한 뒤 홍커우 공원으로 걸어가는 굳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가는 쟁커(荊軻)가 남긴 절창 「역수가(易水歌)」를 통하여 비장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부녀를 유린하는 일본인 스즈키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을 위하여 윤봉길이 나서야만 하는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다. 시야자치의 극본 「윤봉길」(「尹奉吉」)에서 윤봉길은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호의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위하여 필사의 신념으로 홍커우 공원으로 도시락폭탄을 안고 가는 모습을 그리었다. 윤봉길의 부친은 아들의 암살 계획을 눈치채고 그에게 근심을 남겨놓지 않기 위하여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독을 마셔 자결하여 그 비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첸쓰의 극본 「윤봉길」(「尹奉吉」)은 비교적 늦게 창작되었는바 1934년 5월 15일에 발표되었다. 그전 해인 1933년 5월 15일에 조소앙이 이미 『유방집열전·윤봉길전』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7월에 김광이 장편 전기 『윤봉길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는 김구의 「홍커우 공원 폭파안 진상규명」과 『도왜실기』를 참고하여 창작하였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텍스트 속에서 여전히 윤봉길과 처자식과의 이별을 허구로 그려내고 있으며 비교적 긴 편폭으로 “당신을 사랑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我愛你, 但更愛祖國)하는 애국의 감정을 그리고 있다. 극본의 제목이 ‘윤봉길’이기는 하지만 극본의 중점을 외국인들이 ‘중국의 문제에 대한 연설’에 잡아 인물 형상이 비교적 평면화되고 대화도 장황하여 중국인들이 침략에 맞서 부작위한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윤봉길 서사는 ‘한중의 연대감’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가와 산문에서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윤봉길을 따라 배우라 호소하고 있으나 소설에서는 윤봉길 사건의 가려진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상을 전개하여 중국 영웅 서사에 부합되는 윤봉길의 형상을 그려냈다. 극본은 시점을 윤봉길이 임무를 지시받은 뒤 가족들과 작별하는 장면에 놓아 ‘천황 탄신일 행사’ 때

의 비분함을 다시 상기시키고 감화력을 더해 모순을 격화시켰다.

4. ‘맥락화’ 되고 있는 현대 중국의 윤봉길 서사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윤봉길 사건의 서사는 20세기 30년대 중국인들의 항일 열정을 자극하던 서사 장치로부터 20세기 말, 21세기 초 항일 서사의 한 부분으로서 중국인들의 고난의 역사, 항일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서사 장치로 바뀌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항일 서사는 중국인들의 뜨거운 화두로 건국 초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도 자주 출현하는 열기가 식지 않는 주제이다. 항일에 연관된 많은 사건과 인물들은 이미 경전화(經典化)되어 중국인들에게 숙지되어 있으며 항일구국 중에서 장렬히 희생된 열사들의 이야기는 중국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그 이름만으로도 항일의 역사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항일 서사는 새로운 자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으로 잇히고 문헌 영웅들을 발굴하여 이야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환경 속에서 윤봉길과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구사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서사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윤봉길에 대한 기억이 흥커우 폭파안으로 들끓던 중국인들의 항일 정서에 국한되어 있어 그 서사가 흥커우 폭파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윤봉길의 생애에 대한 서사 자료가 중국에서는 많이 발굴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서사가 결핍하다는 점이다. 20세기 말, 21세기 초 윤봉길에 대한 서사는 양이 적을뿐만 아니라 중점을 흥커우 폭파안에 두고 있으며 윤봉길 사건은 한중 연대의 역사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파편화할 수 있는 서사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 현대 작품 속의 윤봉길은 새로 발굴된 역사 자료를 더해 그 깊이

를 더했는데 역사 학자들의 최신 연구성과와 실제 고찰을 더해 진일보 역사적 사실을 환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현대 작가 시야니앤생과 탕하오 필하에서의 ‘윤봉길’은 여전히 1930년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탕하오의 『대한 의사행』(『大韓義士行』)에는 홍커우 폭파안 중의 19육군 부대와 왕야차오 등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홍커우 폭파안 계획 과정은 장광나이와 차이팅카이가 계획하였고 왕야차오가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³⁶⁾ 시야니앤생이 『천국으로 돌아가다』(『回歸天堂』)를 창작할 시기에 윤봉길의 고향을 방문하여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취재하여³⁷⁾ 처음으로 윤봉길이 한국에서의 활동 ‘야학교’와 ‘월진회’ 같은 것을 서사화하였다. 이 작품 중에서 윤봉길이 겪은 사건들은 조소앙와 김광 전기 중의 윤봉길 사건의 연보와 접근했고 전체 작품도 20세기 초의 진실한 한국 역사에 접근하였다. 이 작품은 인터뷰, 제1의 시각으로의 서술과 전지적 시각으로의 서술을 교차적으로 사용하여 진실로 더 접근하게 하였는데 필경 소설인 만큼 많은 허구와 상상도 첨부하였다.

현대의 윤봉길 서사는 많은 역사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나 여전히 진실한 윤봉길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윤봉길과 안중근의 관련을 너무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다. 탕하오의 『대한 의사행』(『大韓義士行』)이나 시야니앤생의 『천국으로 돌아가다』(『回歸天堂』)는 서두에서 많은 편폭을 할애하여 안중근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천국으로 돌아가다』(『回歸天堂』)에서 시야니앤생은 단독으로 한 장절을 내어 안중근 서사가 윤봉길에게 준 영향을 쓰고 있다. 제4장 “안중근의 이야기를 마음

36) 原文如下: 金弘一: “蔣光鼐、蔡廷鍇兩位將軍和京滬衛戍司令陳銘樞將軍商量以後, 認為通過外交途徑已經無法阻止此會召開, 而在現時的形勢下又不能再採取軍事行動, 唯一可行的辦法就是派員潛入會場……”……安昌浩: “由於考慮到日本人不允許中國人進入會場這一因素, 我的老朋友王亞樵也爲此事找我幫忙。”

詳見唐瀛, 『大韓義士行』, 『電影文學』522輯, 長影集團有限責任公司, 2010.11, 166p.

37) 夏輦生, 『回歸天堂』, 上海: 文匯出版社, 2002, 400p.

에 품다”에서 소년 윤봉길은 계몽 선생님에게서 안중근의 경력을 듣게 되며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는다. 상하이에서 윤봉길을 마중하러 나온 임시정부의 요원도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과 동명이인으로 출현한다. 『대한의사행』(『大韓義士行』)의 서두에서는 지어 김구가 안중근의 사진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데 등장인물들에게 의연히 ‘안중근’의 그림자가 비낀다. 두 작가는 안중근이 윤봉길 사건에 준 영향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김광이 작성한 『윤봉길전』의 윤봉길은 이순신과 김옥균³⁸⁾, 나폴레옹과 링컨³⁹⁾ 등 인물들을 롤 모델로 하고 있으며 안중근이 윤봉길에 대한 영향은 쓰고 있지 않다. 김구의 『백범일지』의 저술에 따르면 그와 안중근은 일면식만 있을 뿐 많은 교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윤봉길 서사 중에서 윤봉길은 안중근의 추종자, 중국 의용대 대원으로 출현한다.

그들의 작품 중에는 안중근 외에도 기타 한국 항일 영웅들이 출현한다. 『천국으로 돌아가다』(『回歸天堂』) 중의 윤봉길은 근대 한국의 표징성적인 사건의 영향을 거의 다 받고 있다. 어린 시절에 세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3.1 운동’ 현장에 있었고, 장인은 동학당 농민전쟁 중의 한 두목이며 18세의 윤봉길은 유교 부식회 회장 이종림의 지도를 받는다. 손재선 선생을 통해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게 되며 윤봉길이 야학교에서 읽는 책은 조선공산당원의 책이다. 상하이로 가기로 결정한 뒤 김태식과 선우옥을 통하여 상하이의 상황과 한국 애국단을 알게 된다. 이 작품에서 윤봉길의 매 전환점마다 부동한 정치 견해가 있는 혁명인들이 출현하며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의 영향 아래 점차 성장하고 최후에는 목숨 바쳐 의거를 하게 된다. 시야니앤생의 작품에서는 윤봉길과 다수 혁명가들의 형상을 그리며 근대 한국 독립운동 중의 굵직한 사건들을 생동하게 엮었다. 『대한의사행』(『大韓義士行』) 중에서는 근대 항일

38) 金光, 『尹奉吉傳』, 上海 法界韓光社, 1933, 26p.

39) 金光, 『尹奉吉傳』, 上海 法界韓光社, 1933, 53p.

서사 중의 전형적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 바 예를 들어 안창호, 박찬우, 김홍일, 안홍근, 도불경, 저보성, 채정개 심지어 요시호 카와시마도 나타난다. 이 인물들은 모두 사연을 가진 인물로 근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름만으로도 한 단락의 역사나 야사를 연상하게 된다.

윤봉길 사건을 다루는 현대 작품들은 단일하게 윤봉길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역사 인물들을 윤봉길 스토리에 녹여 넣었다. 이 역사 인물들은 저마다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만으로도 독자들의 연상과 상상을 불러일으켜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로써 파편화되고 생소한 한국의 항일 서사가 윤봉길이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 의사의 형상을 통하여 맥락화되어 한눈에 안겨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런 서사 장치들은 중국의 현재 항일 서사 담론 환경에서 기인된 것이며 집단 내의 항일 서사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항일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재조명하고 그 역사적인 감정을 재확인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5. 나가는 말

김구, 김광, 조소앙을 막론하고 한국인이 그리고 있는 윤봉길은 임무의 집행자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고자’였다. 그는 당시 시국에 대한 파악을 진행하여 ‘홍커우 폭파안’을 추진시켰으며 소극적 반항이 아닌 암살을 선택하였는데 그 목적은 비단 적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만 아니라 대중의 주의력을 불러일으켜 조선의 입장을 ‘소리 높고 말하고’자 하는 ‘발화’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중국 작가들이 그리는 윤봉길은 어떻게 천안절로 향해 갔고 어떻게 두려움 없이 정의를 위해 희생하였는가를 강조하여 목숨 바쳐 얻은 ‘의사’의 형상을 부각했다.

중국 작가 필하의 ‘윤봉길’ 스토리의 잠재적 독자들은 모두 중국인이다. 따라서 작가들은 중국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감소’하고 중국에 상관이 있는 이야기들을 ‘첨가’하여 중국화 된 윤봉길 형상을 축조해냈다. 윤봉길 사건이 시종 베일에 싸여 있었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등 특수한 원인으로 하여 윤봉길과 중국 독자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적 미감이 생겨났는데 이는 중국 작가들이 윤봉길 사건을 구성함에 있어서 더욱 큰 상상 공간을 만들어 냈다. 전쟁 시기 윤봉길은 작가들이 현실 압박과 초조함을 벗어나게 하는 장치로 되었고 그를 이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윤봉길은 집단 기억으로 되었으며 중국 현대의 윤봉길 서사는 많은 새로운 역사적 자료와 새 발견을 더해서 열독의 가치를 높였으며 윤봉길을 노드로 파편화된 근대 한국의 항일 서사를 엮어 한국 근대 역사를 알게 되는 하나의 창구로 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이은상, 『소양선생문집』, 삼성인쇄주식회사출판, 1979.
- 趙素昂, 『遺芳集列傳·尹奉吉傳』, 大同學會, 初版於1933.
- 金 光, 『尹奉吉傳』, 上海法界韓光社, 1933.
- 李存光, 金宰旭, 『“中國現代文學與韓國”文獻補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20.
- 李玉平, 『互文性』, 商務藝術館, 2014.
- 夏輦生, 『回歸天堂』, 文匯出版社, 2002.
- 朱棟霖, 『中國現代文學史(1917-2013)』, 高等教育出版社, 2014.
- 金柄瑅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
- 金柄瑅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散文·紀實·詩歌·劇本卷II』, 延邊大學出版社, 2014.
- 金柄瑅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 小說卷I』, 延邊大學出版社, 2014.
- 唐 灝, 『大韓義士行』, 『電影文學』522輯, 長影集團有限責任公司, 2010.
- 童慶炳, 『文學理論教程』, 高等教育出版社, 2004.
- 袁行霈, 『中國文學史1-4』, 高等教育出版社, 2003.

2. 참고 논저

- 김재욱, 「尹奉吉 의거를 제재로 한 중국현대문학 작품과 그 특징」, 『한국독립사운동』5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226-258쪽.
- 뉴린제, 탕전, 「동아시아 현대문학 속의 한국 항일영웅 서사」, 『아시아문

- 화연구』45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183-209쪽.
- 한지연, 「윤봉길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의: 소설 『친국의 새(回歸天堂)』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54집, 한국보훈학회, 2020, 49-69쪽.
- _____, 「독립운동가 윤봉길 형상 서사의 수용사적 고찰: 潘子農의 소설 “尹奉吉”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62집, 한국보훈학회, 2022, 93-112쪽.
- 李充陽, 「尹奉吉義學의歷史性」,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 4-5pp.
- 蘇智良, 「中國媒体對尹奉吉義學的報道」,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 15-19pp.
- 邵 雍, 「1932年虹口公園爆炸案與中國各方的關係初探」,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2(4)期, 2003, 45-50pp.
- _____, 「朝鮮誌士與中國社會」,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 20-23pp.
- 孫科志, 楊曉雯, 「中國人對尹奉吉事件的認識-以媒體報道爲中心」, 『韓國研究論叢』13, 復旦大學韓國學研究中心, 2006, 137-145pp.
- 宋成有, 「日本朝野의 『滿蒙情結』與中韓聯合抗戰」,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 24-30pp.
- 石源華, 「尹奉吉義學的時代意義」,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 8-14pp.
- 吳 敏, 「論中國現當代小說中的韓國獨立義烈鬥爭形象」, 『韓國研究』10輯, 浙江大學韓國研究所, 2010, 381-397pp.
- 詹明靜, 「中韓民族聯合抗敵禦侮的新起點-虹口公園爆炸案的歷史地位述論」, 『皖西學院學報』21(4), 皖西學院, 2005, 72-75pp.
- 金昌鎬, 「中國現代小說中的韓國人形象」, 『社會科學戰線』2004(1)期, 吉林省社會科學院, 2004, 108-112pp.
- 金學俊, 「尹奉吉義士의上海義學與東北亞和平共存」, 『當代韓國』58輯, 中

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 6-7pp.

朴宰雨, 『韓中國際合作精神的藝術表現—論中國現代小說裏韓人抗日鬥爭的反映』, 『當代韓國』47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5, 4-8pp.

——, 『中國作家的韓人抗日英雄敘事與尹奉吉、魯迅精神的匯合』, 『當代韓國』58輯,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8, 31-38pp.

何遠航, 牛林杰, 『跨文化與跨文本：論兩部劇作的尹奉吉敘事』,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73輯, 齊齊哈爾大學, 2019, 90-94pp.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Appearance of Yun Bong-gil's Event in China

Piao Huizhen* · Piao Xuemei**

On April 29, 1932, the explosion of Hongkou Park shocked the world. Baichuan Yize(Yoshinorishirakawa), the Commander of the Japanese occupation army in Shanghai, was killed on the spot. ChongGuangkui, the Japanese Minister in China, was blown off a leg. Yin Fengji, as a member of the Korean patriotic corps, had become a well-known Korean anti-Japanese hero in China, who carried out the specific assassination. In order to praise and commemorate the martyrs' act of righteousness, and to convey the anti-Japanese spirit of independence and resistance, the Chinese media carried out detailed reports on the event of Yin Fengji. Moreover, Chinese writers paid close attention to it, and created many literary works with the character of Yin Fengji. The uncertainty of Yin Fengji event provides enough space for the writers. Therefore, through the intertext transformation of Chinese writers to Yin Fengji event, the Chinese narrative of the even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s generated.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Yin Fengji event in China by taking the narrative of the event in

* Yanbian University

** Yanbian University

382 한국문학논총 제91집

China as the starting point.

Key Words: Yun Bong-gil, Chinese Narrative, Intertextuality

■ 논문접수 : 2022년 07월 21일

■ 심사완료 : 2022년 08월 14일

■ 게재확정 : 2022년 08월 17일